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 리포트

i-KIET 산업경제이슈

제 8 호
| 2017-08 |
2017.2.20.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내 기업 인식 현황과 정책 과제

요약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외 논의 가속

복잡다단한 글로벌 쟁점들의 해결과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기여와 전문성 등 기업에 요구되는 역할 증가 추세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에 비하여 새로운 국제 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

- 또한, 17개 SDG 목표들 중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목표를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고용 측면에서의 사회적인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인식

세계경제포럼(WEF)의 포용적개발지수(IDI)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GDP만으로 성장을 양적 측정하는 것보다 양호한 발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

- IDI는 성장, 포용성, 세대 간 공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의 발전 단계를 측정하며, 한국은 선진국 30개 국 중 14위
- 그러나 현재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의 포용적 개발 수준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SDGs와 IDI가 강조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비추어 정책방향 조정 필요

-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할 재정 마련을 위해 이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증진과 민간 투자를 유도할 사업구조의 발굴 필요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 요건 중 우리나라가 현재 열악하다고 평가된 노동생산성, 상대적 빈곤, 탄소배출 집약도와 향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양비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여 이들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 *i*-KIET의 *i*는 industry 4.0, AI, IoT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문 연구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음.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외 논의 가속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성장 패러다임

●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01]의 보고서[02]를 통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

2015년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채택된 개발의제 중 가장 다양하고 보편적인 목표 설정에 합의

● 유엔은 새로운 개발의제인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03]" 내에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포함

● SDGs는 전 세계의 가장 시급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포괄하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들로 구성

* 17대 SDGs(각 목표 내 세부목표 개수) : ① 빈곤해소(7), ② 기아종식 및 식량안보(8), ③ 보건복지 증진(13), ④ 교육(10), ⑤ 양성평등(9), ⑥ 물과 위생(8), ⑦ 지속가능한 에너지(5), ⑧ 경제성장 및 고용(12), ⑨ 인프라, 산업화 및 혁신(8), ⑩ 불평등 해소(10), ⑪ 지속가능한 도시(10), ⑫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11), ⑬ 기후변화(5), ⑭ 지속가능한 해양자원(10), ⑮ 육상생태계(12), ⑯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12), ⑰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19)

● 사회개발에 치중한 개도국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의 개발목표[04]에 비해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포함하는 전 세계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그 적용 범위 확대

국내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책 마련 중

● 의제21[05]의 이행 평가를 위하여 각국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유엔의 권고에 의하여 우리나라도 2000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 정부는 시민사회와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2006년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을 발표한 이래[06], 2011년 제2차 계획(2011~2015)과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35)[07]을 이어서 발표

● 환경보호가 주축이던 초기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세에 따라 2차 기본계획까지는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2015년 SDGs가 채택되면서 제3차 기본계획은 전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경제와 사회 지표들도 비중 있게 포함

01]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02] *Our Common Future*(Brundtland 보고서라고도 불림).
03]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04]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05] *Agenda 21*,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 결과 채택된 지구 전체의 환경 보전 기본원칙인 '리우선언'의 실천계획.
06] 의제21은 서로 다른 국가 역량과 여건을 반영한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략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2년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은 구체적으로 2005년까지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이행에 착수하도록 촉구.
07] 4대 목표, 13개 전략, 50개 이행과제 제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분야에 비해 경제와 사회 분야 지표들의 구체성과 세분화는 아직 미흡하며, 특히 경제 분야 지표들이 매우 제한적

지속가능발전 시대에 요구되는 기업의 역할 증가

2012년 Rio+20 회의의 결과물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08]"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요건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 및 협력을 꼽았으며, 여기에는 기업과 산업 부문이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포함

SDGs는 포괄적인 목표들을 설정하였고 이의 달성을 위해 상당 수준의 재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요구

● 공적 재원뿐만 아니라 기업을 비롯한 민간 재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민간 부문은 재정적 기여뿐만 아니라 민간 고유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촉진 가능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의 대표가 중심이 되어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BCSD)를 1995년 창설

● WBCSD는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네트워크로서 다른 회원사들과 협력하여 환경 및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에 관한 정보의 교류와 전문성 강화 지원

● 현재 8조 5,000억 달러의 매출을 내는 2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 기후변화, 식량, 생물다양성 등 모든 섹터들을 포함하여 기업들의 SDGs 이행 지원에 주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국내 기업의 인식은 아직 부족

국내의 SDGs 관련 인식과 이의 달성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추구하는 계획 현황을 알아보고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기간 : 2016년 9~10월(1개월)
* 설문응답 기업 수와 구성 : 92개 기업[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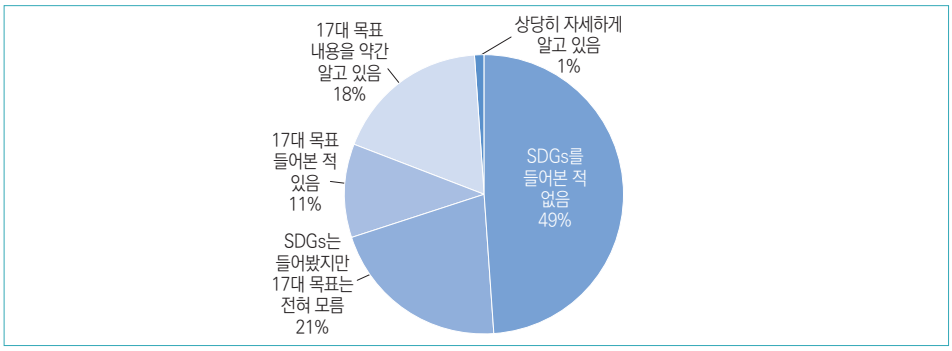
국내 기업들의 SDGs 관련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은 편이며, 기업 차원의 대응책도 일부 기업에서만 마련 중

● 응답 기업 중 약 절반(49%)이 SDGs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으며, 30%가 SDGs의 17개 목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

* 전체 응답자의 약 90%가 SDGs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글로벌 기업 대상 해외 설문조사(2015년 6~7월 Pricewaterhouse Coopers 실시) 결과와 대비

08] *The Future We Want.*
09] 대기업 45%, 중견기업 36%, 중소기업 14% 등 / 제조업 42%, 정보통신업 18%, 건설업 14% 등.

그림 1] 설문 응답 기업의 SDGs 17대 목표 관련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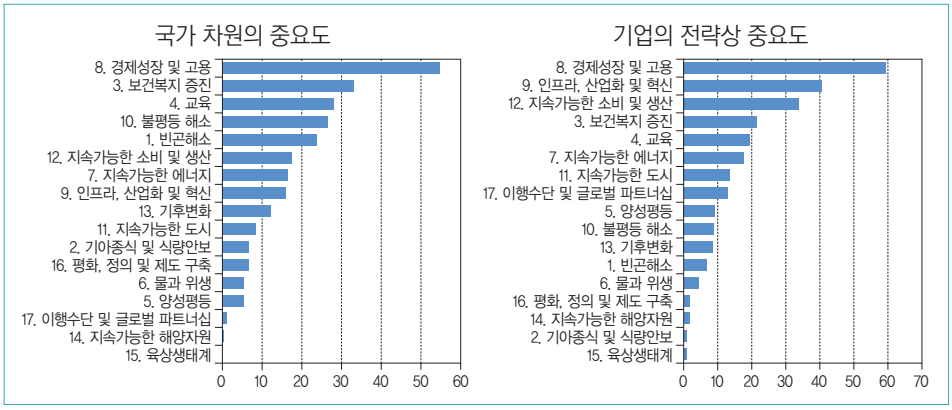


자료 : 임소영 외(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산업 부문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연구」.

응답 기업들은 전체 17개 SDGs 중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목표가 국가 및 회사 차원 모두에서 가장 중요하며, 미래 사업 기회와도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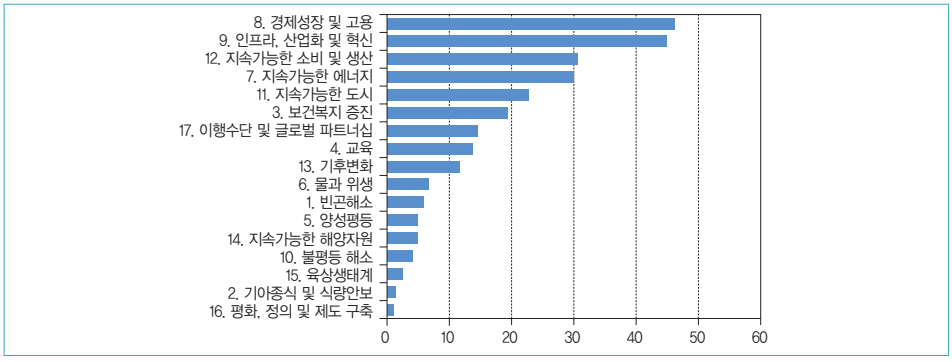
●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관련 목표는 여덟 번째 목표(SDG 8)로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으로 구체화되어 설정

그림 2] SDG 17개 목표들 중 국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자료 : 임소영 외(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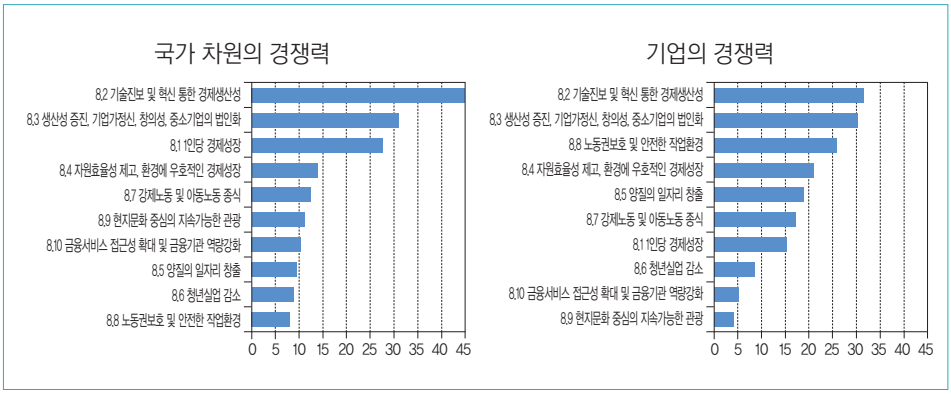
그림 3] SDG 17개 목표들 중 국내 기업들이 미래 사업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목표 순위



자료 : 임소영 외(2016).

10] 이하의 설문 응답 결과는 3순위까지 표명한 우선순위 결과를 각 순위별로 차등을 두어 산정함.

그림 4] 국내 기업들이 경제성장 및 고용 관련하여 경쟁력 있다고 인식하는 목표 순위 (SDG 8의 세부목표들 중 순위)



자료 : 임소영 외(2016).

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분야이자 향후 기업에 잠재적인 기회로 인식되는 SDG 8의 세부 목표들 중 우리 기업들은 양적인 성장과 기술, 혁신 관련 목표들보다 고용의 질과 관련된 목표들에 대해 대비가 미흡하다고 인식

- 국가 차원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청년실업, 노동권 등에 관한 여건이 열악하여 고용 측면에서 사회적인 포용성이 충분히 배려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SDGs 이행 대책 마련은 아직 소극적으로 진행 중

- 전체 응답 기업들 중 23%만이 기업 차원의 대응책 보유
- 주로 전략 및 계획, 인력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개발이나 예산 배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는 실정

* SDGs 이행 대책 보유 기업들은 전략 및 계획(71%), 인력(70%), 신규 사업 개발(38%), 예산 배정(29%) 순으로 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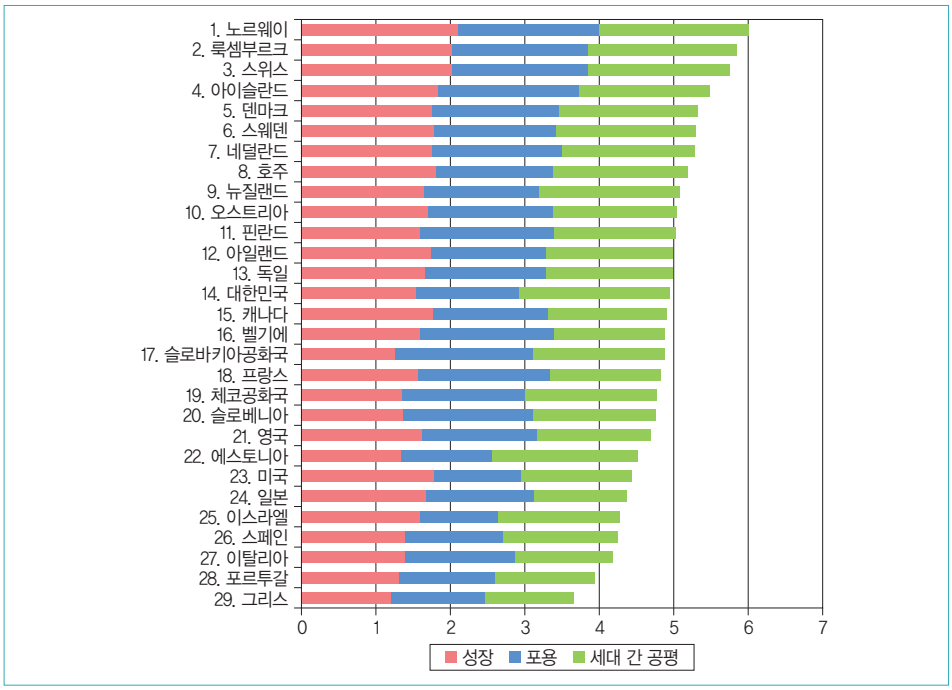
WEF 포용적개발지수, 한국은 선진국 30개국 중 14위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은 각국의 주요 성과지표들을 바탕으로 생활수준을 다각도로 진단하는 포용적개발지수(Inclusive Development Index, 이하 IDI)를 개발하여 발표

-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는 경기침체와 불평등의 심화를 겪으면서 세계경제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 WEF는 각국의 GDP만으로 측정되는 단순한 양적 비교가 아니라 교육, 인프라, 투자, 기업가정신, 사회보장 등 생활수준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하여 국가 경제정책 방향의 전환 모색
- 이는 국가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증가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인 생활수준의 진보로 이해하기 때문
- 109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포용적 개발의 현황과 최근 5년간 성과를 평가하여 순위 제공

● 교육, 보건 및 위생과 같은 사회개발에 치중한 지표들을 반영한 종합지수인 인간개발지수(HDI)[11]에 비하여 IDI는 포용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개발,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종합지수

그림 5] **WEF의 포용적개발지수(IDI) 결과 : 30개 선진국 대상**



자료 : WEF(2017),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7*.
주 : 포용성 지수를 구성하는 데이터가 부재한 싱가포르 제외.

표 1] WEF의 포용적개발지수(IDI)를 구성하는 지수의 한국 점수와 순위(선진국 30개국 중)

IDI 요소	단위 지수		한국 점수(순위)	선진국 평균
	종류	한국 순위		
성장	1인당 GDP	24	4.60(22)	4.90
	노동 생산성	24		
	건강기대수명	3		
	취업률	11		
포용	순소득불평등	17	4.23(23)	4.75
	빈곤 비율	23		
	부의 불평등	12		
	소득 중간 값	-		
세대 간 공평	조정 후 순국민저축	3	6.00(2)	5.00
	GDP당 탄소집약도	27		
	공공 부채	6		
	부양비	1		

자료 : WEF(2017).
주 : 점수는 1~7 범위이며, 높을수록 우수한 상태 의미.

11] Human Development Index, 양적 성장 측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발한 지수.

한국은 IDI 측정 대상 중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선진국 30개국 중 14위의 성과 달성

- 한국은 GDP만으로 성장을 측정(30개국 중 24위)하는 것보다 개발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IDI로 측정하는 경우에 더 양호한 결과 도출
- 특히 한국은 IDI를 구성하는 성장, 포용성, 세대 간 공평성 중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유년 및 노년층 인구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내는 부양비가 매우 낮아 세대 간 공평성 측면에서 우수한 결과 도출[12]

SDGs는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포괄적인 포용성, IDI는 지속가능발전 정의에 충실한 세대 간의 형평성에서 차별화

WEF의 IDI는 경제성장의 양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지 않고 개발의 다각적인 관점에서 발전 단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유엔의 SDGs와 비견할 만한 지수이나, 지향점과 접근법에서 간극 노정

- IDI를 구성하는 포용성은 SDGs가 강조하는 성별, 이주상태 등에 따른 취약계층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여 포용성의 포괄성이 다소 미흡
- IDI는 SDGs에 비해 세대를 아우르는(intergenerational)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에 보다 더 충실하여 세대 간의 형평을 주요 지수로 고려하는 차별성 보유
- 성장 중심의 관점을 유지해 온 WEF가 GDP 이외에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포용성과 세대 간 공평성을 고려하려는 움직임은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계기로서 시사하는 바가 다대

우리 기업이 SDGs의 경제 부문 관련하여 한국이 열악하다고 판단한 고용 상태의 포용성을 IDI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IDI 현재 수준과 최근 5년간 추세가 양호한 것으로 측정

- 우리 기업들은 SDGs가 경제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포용성으로 강조하는 청년과 장애인 실업,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불안정한 고용상태 근로자의 노동권, 여성의 근로환경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

인식 증진과 면밀한 현황 진단이 지속가능발전 활동 촉진의 기본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 기류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당위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할 재정 마련을 위해 민간의 참여와 투자 유도 시급

- 국제사회는 고령화, 기후변화, 빈부 격차, 국제분쟁 등 심화되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성장 패러다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

12]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 구조를 고려하면, 부양비 여건은 수년 내에 급속히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 광범위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강점과 수요가 서로 보완되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사업구조(예 : 민간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민·관 금융협력 수단인 혼합금융과 민관협력체제(PPP) 등)의 적극적인 발굴 필요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이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증진과 관련 활동의 자율적인 추진 필요

● 환경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기업 활동이 단순한 사회공헌에 그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 증가 추세

● 규제에 의한 수동적 조치에서 더 나아가 기업 주도의 능동적인 해결책 제시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의 연구와 적용사례 발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의 실현 가능성과 중요성에 관한 기업과 일반 국민의 인식 증진이 필수적

● 기업 활동의 전체 과정 내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을 내재화, 주류화하여 각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속가능발전 이슈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추진

SDGs와 IDI가 보여주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의 양상과 현재 한국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정책방향 조정 필요

●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위주의 포용성을 강조하는 SDGs의 측정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성, 연령, 이주상태 등에 따라 세분화된 국가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

● IDI를 구성하는 단위 지수들의 특성상 한국의 포용적 개발의 현재 상황과 최근 추세가 양호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이와 같은 결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경제, 사회, 환경 정책 및 국제협력 방향이 서로 부합하여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정책의 조정 기능 강화 중요

임 소 영
(부연구위원·글로벌전략연구단)
sylim@kiet.re.kr
044-287-3133

KIET 산업연구원
발행인 유병규 / **편집인** 주현 / **편집** · **교정** 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 044-287-3114 Fax : 044-287-3333 www.kiet.re.kr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에서도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